선택받은 찌꺼기들

(롬11:1~10)

1.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2.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3.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 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4.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칠천 명을 남겨 두었다 하셨으니
5.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선택받은 찌꺼기들>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선택이라고 하는 말과 사람을 향해서 찌꺼기라고 하는 말은 잘 쓰지 않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좀 더 두드러지게 드러내기 위해서 일부러 찌꺼기라는 말을 선택해보았습니다.
근데 사람에게 사용할 때 선택을 받았다는 말과 찌꺼기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 그 뉘앙스나 의미가 정반대의 위치에 서있는 말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남은 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남은 자'는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예언서라든지 성경 전체를 관통해서 생각할 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한번 들어보면, 언제나 선택이라는 말을 떠올려서 제게 적용할 때마다 제가 기억해내는 사건입니다.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군에 입대해서 훈련을 받기 위해서 논산에 다른 신병들과 함께 모였을 때, 이미 훈련도 받기 전인데 그중에서 특기병들을 다 뽑아가는 거예요.
심지어 정원을 가꿀 수 있는 사람, 또는 바둑을 잘 두는 사람, 이런 사람들까지 재능이 있는 사람들을 다 특기병으로 뽑아갑니다.

제 이름도 불렸어요, 특기병들로 뽑아간 게 아니라 그냥 제 이름을 불러서 한 열댓 명이 그 기관병을 쫓아갔어요.

그래 다시 일렬로 세워놓고 '너희는 부모 잘 만나가지고 수도경비사령부로 배치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이름을 확인하는데, 거기에 제 이름이 없는 거예요.
제 이름이 없고, 최 승철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최 승철을 태 승철로 잘못 듣고 일어나는 바람에 진짜 최 승철은 거기 남아있고, 태 승철이 갔다가 '넌, 아니야' 하며 뒤통수를 맞고 터덜터덜 다시 온 겁니다.
그때 부슬비가 부슬부슬 왔거든요?
제가 3수 하다가 대학도 못 들어가고 군대를 갔으니까 무얼 할 수 있었겠습니까?
대한민국 안에서 나의 미래가 암담한 거예요.
그런데 군대에 들어가도 다 똑같이 생활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 다시 돌아갔더니 나머지들이 거기 모여 있더라고요, 좀 심하게 말하면 아무 재능도 없어서 선택받을 가능성이 제로인 찌꺼기들이 모여 있는데, 내가 거기에 합류했습니다.
그랬다가 카투사로 가게 된 거죠, 아! 이것 참… 대단한 하나님의 은총 아닙니까?

하여간, 지금 무얼 말씀드리는 겁니까?
선택을 받은 자들과 나머지들은 항상 반대 입장에 있는 거예요.
재능이 있어서 특기병으로 다 뽑혀간 사람들은 선택받은 사람들은, 아무 재능도 없고 그나마 능력 있는 부모님 밑에 태어나지도 못해가지고 수도경비사령부라든지, 빽이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 부대에도 뽑혀가지 못한 나머지들이 모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선택받은 자들과 나머지 찌꺼기로 분류될 수 있는 그룹과는 언제나 반대 입장에 서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 '남은 자'가 remnant에요, remnant.
이 뜻을 보면 '잔여', '찌꺼기', '자투리', '나머지',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 이후에 남겨진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죠.
성경 속에서 이러한 남은 자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마음을 먹고 세상을 섭리하시는 그런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remnant, 남은 자가.
좀 심하게 말하면 찌꺼기 그룹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실례를 들어보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노아의 시대 때 노아와 그 가족이 바로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홍수로 온 세상이 멸망을 당할 때 그들이 남은 자들이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심판 당해 멸망을 당할 때 남은 자들이 롯과 그의 두 딸이었습니다.
출애굽 한 장정들이 광야에서 1년 만에 가나안 땅 경계에 도착해서 정탐을 하고 돌아왔을 때, 불신앙적인 정탐 보고를 함을 통해서, 그리고 그에 동조함을 통해서, 출애굽 당시의 성인 모두가 다 죽습니다.
거기서 남은 자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북 왕국 이스라엘에서 엘리야 시대, 아합 왕과 왕후 이세벨이 통치하던 시대에 남은 자 칠천 명.
그리고 사도바울 시대가 되면 전 세계로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까지 총망라해서 십자가에 달린 패배자처럼 보이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 이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중세시대에는 암흑기로 썩어가고 있는 시대에 루터와 캘빈 같은 종교개혁자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에서는 남은 자가 누굴까요?
나는 남은 자에 속해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이 사실을 오늘 이 특이한 언어조합 속에 숨어있는 의미를 통해 알아본다는 겁니다.
특이한 언어조합이라고 말한 것은, 선택받은 자와 남은 자, 찌꺼기 그룹이라는 것은 같이 어울릴 수가 없는 단어들인데, 이 어울릴 수 없는 상치되는 의미의 두 단어를 합쳐서 선택받은 찌꺼기들, 선택받은 남은 자들이라고 하는 이 모순된 언어의 조합 속에 들어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밝혀내면, 내가 남은 자 그룹에 속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엘리야 시대로 가서 남은 자,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칠천 명이 어떤 사람들인가 한번 봅니다.
엘리야 시대는 말씀드린 대로 아합 왕과 왕후 이세벨이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이세벨은 이방여자였습니다.
친정나라에서 섬기던 아세라 여신은 바알 남신상의 배우자가 되는 우상입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아합 왕과 이세벨이 정책적으로 강조하고 실행했기 때문에 선민의 나라인 북왕국 이스라엘 전체에 편만할 때였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모든 선지자가 다 잡혀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 모든 선민들이 다 바알 신에게 무릎을 꿇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자 칠천 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여기서 남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심하게 말하면 찌꺼기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들이 찌꺼기로서 표현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나도 지금 이 세상에서 찌꺼기 그룹에 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찌꺼기일까?
바알 신을 섬긴 이유는 뭡니까?
바알 신이 농사 신입니다, 당시의 농사 신이라는 것은 풍요와 다산을 관장하는 신이었습니다.
다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곡식의 열매가 많이 맺혀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풍작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풍요와 다산이라는 게 거의 같은 의미로 통할 수가 있는 단어죠.
그 시대의 시대정신은 풍요와 다산을 마음으로 간절히 원하고 그것을 추구해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알 신을 섬기는 일이 편만하다는 것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풍요와 다산을 마음으로 간절히 염원하면서 열심히 일생을 다해 추구하고 있었다는 것을 뜻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즘 말로 하면, 돈과 인기, 부자 되는 것과 세상에서 뜨는 것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바알 신을 숭배하는 시대정신이 사실은 지금까지도 면면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정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경쟁을 합니다, 누가 더 돈을 많이 버는가, 누가 더 풍요한가, 누가 더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가,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 숫자적인 부흥을 이룰 수 있는 것인가, 숫자적인 부흥은 기업 하는 사람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이고 목회하는 사람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이고 교수님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교수님이 인기가 많아 학생들이 많이 몰려오면 거기서 보람을 느끼고, 또 연예인들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모두가 이렇게 돈과 인기를 간절히 염원하면서 경쟁하는 세상이 당시 바알숭배로 편만했던 북 왕국 이스라엘의 시대정신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시대정신 속에서 '남은 자' 찌꺼기라고 하는 말은 돈과 인기를 얻기 위한 경쟁 속에 뛰어들어서 꼴찌 한 자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경쟁 속에서 하위권에 속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예 돈과 인기를 마음으로 원해서 뛰어가는 경쟁에 처음부터 들어가지 않은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마음에서 돈과 인기를 원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정신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땅의 입장에서 볼 때, 풍요와 다산이 최고의 가치가 돼서 모든 사람이 그것을 쫓아가고 돈과 인기를 쫓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정신의 관점에서 볼 때, 전혀 그 시대에 필요치 않는 자들, 그 시대가 요구하지 않는 자들이 누군가 하면, 돈과 인기를 마음으로 원해서 쫓아가지 않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찌꺼기고 그들이 남은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선민사회였지만 돈과 인기를 좇지 않고 다른 것을 좇고 있었던 이 사람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무엇을 좇고 있었을까요?
이 세상에서 보면 찌꺼기들입니다, 왜냐하면 돈과 인기를 좇는 시대정신이 그들을 지배하지 못한 채 그 시대정신 바깥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 시대정신의 입장에서 보면 전혀 이 시대에 필요한 자들이 아니므로.
돈과 인기를 쫓아가는 경쟁 속에서 꼴찌도 이 시대는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꼴찌가 있어야 1등이 빛이 나기 때문에.
돈과 인기를 얻지 못해서 loser가 된 채로 주눅이 들어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내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시대정신은 돈과 인기를 얻고 싶은데 능력이 없어 얻지 못하는 꼴찌들과 하위권에 속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필요로 하지 않는 진짜 나머지들, 찌꺼기들, 이 시대가 버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돈과 인기를 마음으로 좇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찌꺼기들은 도대체 무엇을 좇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늘정신에 지배되어 있어서 이 시대정신에 지배된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할 때 하늘을 벌려고 하고, 이 시대정신에 지배된 사람들이 사람들의 인정을 얻으려고 할 때 하늘정신에 지배된 사람들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인정을 원하며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노아 같은 경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노아를 볼 때는 이해가 전혀 안 갑니다.
맑게 갠 바짝 마른 하늘 아래서 홍수를 대비한다고 방주를 짓고 있습니다.
지금 그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 많이 더 열심히 돈과 인기를 위해 뛰어도 될까 말까 한 삶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돈과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길과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삽니다.
왜 맑게 갠 바짝 마른 하늘 아래서 방주를 짓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도 바닷가가 아닌 산중턱에다가.
돈과 인기를 얻기 위해 뛰어가는 사람들의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또, 방주를 짓는데 내가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방향키가 없는 배를 만드는 것입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러나 하늘의 입장에서 봅니다.

시대정신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노아와 그 가족들을 하늘의 입장에서는 오직 그들만은 살려두시고 나머지 전체를 홍수로 없애버리십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것 기억하시죠?
2차 대전 때 프랑스 파리 시민들이 나치의 군대가 진격해 들어오기 직전에, 더 이상 저항하다가 나치의 공습으로 파리가 훼손될까봐, 그래서 파리 안에 보존돼있는 문화유산과 예술품들이 없어질까 봐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항복을 하고 무저항으로 나치가 점령하게 됩니다.
아깝지요, 그 마음이 이해가 가는 겁니다.
그런데 노아 때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킬 때, 그런 파리의 유산 정도가 아니라 당시까지 있었던 전 세계의 문화유산들, 그리고 지금의 미국 대통령이나 세계적인 기업의 총수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노아의 홍수에 휩쓸려 가버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도 아까워하시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늘정신에 지배되어서 하나님을 벌려고 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살고 있지 않는 모든 이 시대정신 속에서 일등 한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업적들을 하나님은 하나도 아까워하시지 않으십니다.
단지 지금 노아 홍수가 다시금 일어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에게 다짐을 하신 '다시는 이렇게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신 뜻대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진노를 연장시켜가고 계시는 것뿐입니다, 돌아오라고.
하나님께는 삼성에서 아까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삼성 전 자산을 다 해도 애플 전 자산을 다 해도 아까울 게 없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하늘정신에 입각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 사람이 홍수에 휩쓸려간다고 해서 아까워하실 일이 아닙니다.
단지 긍휼히 여기고 계시는 것이에요,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까운 사람은 오직 하늘정신에 사로잡혀서 돈 버는 대신에 어떡하든지 하나님을 많이 벌려는 사람, 하나님을 번다는 것은 하나님과 많이 친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이는 이 세상의 어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우선적인 현실로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의 인정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 하시는 일을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을 아까워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남은 자라는 거예요, 이 시대정신에서 보면 찌꺼기들입니다.
대열에 속해있지 못하고, 경쟁에 속해있지 못하는.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봅니다.

내가 남은 자라면 직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열손가락 가락지를 끼고 껴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습니다.
무엇에 대해 죽습니까? 승진에 대해 죽으세요, 회사의 이윤에 대해서 죽으세요.
그렇다고 회사를 배반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책상에 앉아서 사무를 볼 때 그 자리에 앉아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지금 주어진 일을 어떻게 처리하면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실까를 생각하세요.
그렇게 일을 하다가 쫓겨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또 하나님께서 필요한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승진시켜주시잖아요?
그러면 승진 때문에 감사할 것이 아니라, 승진된 그 자리에서 또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면 기뻐하실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로 죽는 것은, 시대정신에 속한 사람들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은 사람들이 돈과 인기를 쫓아갈 때 우리는 돈에 대해서 죽고 인기에 대해서 죽는 겁니다.
회사 다니는 사람에게는 사장님에 대해서 죽는 것이고 부장님에 대해서 죽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정에만 마음을 집중시키는 겁니다.
그러다보면 처져 보일 때도 있고 앞서게 인도하실 때도 있고…
그러나 앞선 것도 앞선 것이 아니고 처진 것도 처진 것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지, 사장이 되어도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행해야 되는 거고, 수위로 있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행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높고 낮음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나머지입니다.
시대정신의 입장에서 보면 찌꺼기에요, 왜냐하면 시대정신에 사로잡혀서 경쟁에 뛰어든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찌꺼기들이 바로 하늘의 입장에서는 은혜로 선택받은 왕과 같은 자들이라 이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하늘로부터 선택받은, 이 세상의 시대정신으로부터 버림받은 찌꺼기로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나는 담대하게 세상에 대해 찌꺼기라고 외칠 수 있고, 하늘에 대해 은혜로 선택받은 자라고 믿을 수 있는 그러한 하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